

#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협력 전시

도내 8개 지역 시·군 공립미술관과 연대·협력 강화  
2105점 소장품 전면 공개... '공통의 사용'으로 전환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지난 20일 정읍시립미술관의 '집으로 가는 길, 귀로Ⅱ' 전을 시작으로 도내 8개 지역의 시·군 공립미술관과 함께하는 '2025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의 협력 전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9월 이애선 관장 취임 이후 도내 시·군 공립미술관 학예연구자들이 매월 정기 연석회의를 통해 시·군 공립미술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권역에서 문화 소외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협력 전시는 정읍, 전주, 고창, 김제, 순창, 익산, 남원, 무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전북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시·군 공립미술관 학예연구자들에게 제한 없이 2,105점의 소장품을 전면 공개하고, 전시 기획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타 광역시도 미술관과는 달리 도내 공립미술관에 대한 소장품 운영 방향성을 '공통의 사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연석회의를 통해 전시 기획을 함께 공유하는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디자인, 운송, 홍보 등 제반 업무를 맡는다. 자세한 관람 일정은 각 기관 누리집 및 기관에 문의·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2025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포스터

# 정읍시립박물관, 국보순회전 유치

9~12월 '푸른 빛에 담긴 품위와 권위, 조선 왕실 청화백자' 전시

조선 왕실의 권위를 담은 청화백자가 정읍을 찾는다. 정읍시립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푸른 빛에 담긴 품위와 권위, 조선 왕실 청화백자' 전시를 개최한다.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로'는 수도권과 지



전국 8개 박물관이 공모에 선정됐다.

방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소중한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국보와 보물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박물관에서 순회 전시되며 올해는

정읍 전시에서는 '백자 청화 투각 모란당초문 향아리(보물)'를 비롯해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다양한 청화백자가 공개된다. 특히 보물로 지정된 '백자 투각 모란무늬 향아리'는 원통형 내호(內壺)와 활짝 핀 모란꽃을 투각한 외호(外壺)로 이루어진 이중 향아리 구조가 특징적이다. 조선 왕실 청화백자의 대표 유물로 평가받는 이 향아리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민과 관람객들이 국보급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쉽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 부안마실축제, 제13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부안군은 지난 25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11회 부안마실축제는 부안 해돋마루 지방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축제로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호평을 받은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부안의 13개 읍면의 특색을 살려 마실의 정체성을 보여준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엄마·아빠들의 무대 경험을 쌓이준 '미스앤파파스 뮤지컬 스테이지', 부안의 특산물을 직접 구입해 조리해 먹는 '로컬푸드 팍파티', 어린이날을 맞아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 '해돋마루 마실 퍼레이드', 내소사 동종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의미로 추첨을 통해 순금 동종을 증정한 '황금



동종을 선물합니다' 등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물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으로 부안마실축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올해 열리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도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부안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남원 항공우주전문대, 4D폴덤 영상 상영

남원시 항공우주전문대는 관람객들의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관람만족도를 높이고자 4월 1일부터 신규 4D폴덤 영상 'COM COM : 태양계 너머로의 여행'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4D폴덤은 순수 국내기술로 2025년에 신규 발표한 4K폴덤 영상으로, 미지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한 천재 소년 코미와 AI로봇 프로토가 떠나는 우주탐험의 여정을 최신 CG를 통하여 그리고 있다. 특히 좌석의 움직임 및 진동과 바람, 빛 등의 4D효과가 더해져 더욱 스릴 넘치는 모험과 흥미로운 과학적 지식을 동시에 제공하며 나아가 즐거움과 교육적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예정이다. 남원항공우주전문대 4D폴덤 영상관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매 30분 마다 일일 총 22회 운영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1석당 1,000원으로 현장 발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글로벌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개최

남원시, 4월 30일 제95회 춘향제 전야제 행사로 진행

남원시에서는 오는 4월 30일, '제95회 글로벌 시니어춘향 선발대회'가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신 노년 문화를 확산시키고 오랜시간 인생을 살아온 지혜를 전하기 위해 시작된 선발대회는 올해 9회째를 맞는 전국대회로, 제95회 춘향제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 행사로 춘향제 첫날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참가 대상 기준을 기존 60세이상(1965.4.30.이전 출생) 여성에서 55세이상(1970.4.30.이전 출생) 외국인 여성과 다문화 여성까지 확대해 글로벌과 시니어를 결합한 남원만의 특색있는 지역축제로의 자리매김에 나선다. 서류심사 기준으로는 지역사회 공헌 및 청춘 점수(수상경력, 봉사활동, 사회참여 등)로 내면의 미를 심사하고, 에세이 점수로 삶의 감동적 이야기를 심사, 이는 다양한 직업군의 참여를 유도하여 참가자의 다채로운 스토리를 선사해 재미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4월 4일까지 47일간으로 4월 7일예선 심사를 거쳐 4월 30일 본선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활동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시니어춘향 선발대회는 인생의 지혜와 삶의 노하우를 젊은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멋진 자리로, 전국을 넘어 세계의 많은 멋진 시니어 여성과 외국인 여성들도 많이 참가해 인생에 빛나는 날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권 문화·관광재단,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염원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이경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도내 5개 문화·관광 재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전북의 꿈'을 담은 메시지를 통해 2036 하계 올림픽 성공적 유치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이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지역사회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올림픽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 국제적 관광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가 강조한 "K-컬처의 뿌

리를 전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토대로, 전북의 독특한 문화예술적 특성과 웰니스, 생태 관광 자원 등이 올림픽 유치에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을 국제적인 문화·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네트워크에 함께한 전북권 문화·관광 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순창발효관광재단 등 5개 재단이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중턱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